

[경제]

금리↑ 환율↓ 유가↑... 가격 경쟁력 악화, 대출 연체율 급등

중기發 금융위기 오나

시중銀 3분기말 연체 상승폭 0.04~0.32%P로 가계대출의 두배

3·4분기 시중은행의 대출연체율이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선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급증한 중소기업대출이 환율하락과 유가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악화와 맞물릴 경우 향후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신 기준 적용)은 3분기말 1.32%로 전분기말에 비해 0.32%포인트 급등했다. 2005년말 1.02%, 지난해 말 0.86%로 줄곧 1% 부근을 맴돌다 3분기 크게 높아진 것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0.07%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에 비해 0.78%포인트 높았다.

신한은행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3분기말 1.24%로 0.26%포인트 급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총연체율도 0.11%포인트 오른 0.80%를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이 0.13%포인트로 가계대출(0.07%포인트)의 두 배에 달했다. 2005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연체율을 낮춰왔던 국민은행도

총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3분기말 총연체율은 0.69%로 전분기보다 0.02%포인트 소폭 높아졌지만 중소기업대출의 상승폭은 0.04%포인트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연체율 산정 기준을 변경했으며 신 기준을 이용하면 옛 기준에 따라 나온 수치보다 연체율이 낮게 산출되는 편인 점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 현상은 가볍게 볼 사안인 아닌 것이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증가액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5년 20%대에서 지난해 50%, 올해 상반기 81.7%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기대출의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지만 잠재적으로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올해 중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진데다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된 점이 원인이 크다. 또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중소기업대출의 일부가 주택시장 침체로 제때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해외반출 4년째 2조 넘어

해외재산반출이 원화강세 등 영향으로 4년째 2조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이민자들에게 의한 해외이주비와 국내재산 반출액 규모는 21억6천56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올들어 9월까지 원·달러 환율 평균치 932.20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2조18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외재산 반출액은 2004년 이후 4년째 2조원을 넘어섰다.

한은 국제수지 통계 가운데 자본이전수지의 대외지급 항목으로 분류되는 재산 해외 반출액은 2000년 6억9천380만달러였으나 2002년 1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평균환율이 1천144.70원이던 2004년 18억1천200만달러로 증가하며 2조원을 넘었다. 이후로도 2005년 23억7천820만달러, 지난해 31억4330만달러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 해외반출액 가운데 해외로 이민간 재외동포가 국내에 남겨둔 재산을 처분한 뒤 반출해 간 금액은 17억9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7% 줄었다. 그러나 이민 초기 정착용 자금 등으로 휴대반출하는 해외이주비는 1~9월중 4억5천6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액이 늘어난 것은 해외 이민이 증가하는 데다 원화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원화강세 덕분에 국내 재산을 처분한 뒤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외화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해외부동산 양도세 파악 취약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파악하는 체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41건으로 납부액은 11억2천3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1건(1억6천500만원)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2004년 12건(4천100만원), 2005년 16건(3억6천만원), 2006년 12건(5억5천7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해외 부동산 처분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취득시 3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취득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양도할 때는 양도자가 외국환은행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해외 부동산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천387건(5억8천1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취득규모인 1천286건(5억1천400만달러)을 웃도는 등 크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하라”

공정위, 정통부 추진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는 경쟁 왜곡

고가의 이동전화요금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특히 공정위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의 제도가 오히려 규제만 양산하고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문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공정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미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여서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재판매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며, 최근 이동 3사가 망 내합인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재판매 의무화 도입의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매 의무화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면 시장의 수요에 맞는 재판매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재판매 의무화 도입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일부 업체가 재판매 시장 진출을 주저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가 사업자의 혁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전체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기회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장왜곡을 야기하고 자율 거래를 저해할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재판매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도매요금 규제가 이뤄지므로 소매요금 규제는 폐지 내지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최소한 요금인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통부는 지난 8월 통신시장의

규제들을 소매중심에서 도매 위주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하거나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의무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뿐 자율적인 경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정통부의 업계에 대한 규제에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요금인가제와 재판매 의무화 등 정통부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産銀 직원들 여학연수 다녀와서 대부분 엉뚱한 곳서 근무

산업은행의 해외연수자들이 여학 연수를 다녀온 뒤 대부분 연수 언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연수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복희 의원실이 5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개월 미만의 단기연수를 위해 총 176명에게 10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중 현지어 연수자 27명 중 러시아어를 배운 뒤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근무하는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연수 언어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헝가리어를 연수한 직원은 지식서비스산업실에, 태국어 연수한 직원은 공공사업실에 근무하고 있다.

또 인도에서 인도어를 연수한 직원은 안양 지점에서,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를 연수한 직원은 포항과 서울 중로지점, 구로지점에 각각 근 176명에게 10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중 현지어 연수자 27명 중 러시아어를 배운 뒤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근무하는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연수 언어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향후 현지에 자리가 생기면 여학 연수자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의료 급여 수급자중 역대 재산가 수두룩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급여혜택을 받은 부경 수급자가 있어 월세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을 가진 취소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세대는 총 2만3천954세대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 가운데 재산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만 42명이고, 최고 8억원 이상의 자산가도 2명이나 됐다. /연합뉴스



‘옥션 모터스’ 9일 광주 로드쇼 온라인 쇼핑몰 ‘옥션’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강서구 기양동 한길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로드쇼를 하고 있다. 옥션은 오는 9일 광주 중앙자동차매매단지에서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25일까지 전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옥션 모터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자기자본비율 산정 강화 바젤II 내년 시행
신용도 따른 대출 차등 심화될 듯**

내년 1월부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된 바젤II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도에 따른 대출 차등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젤 II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자기자본에 관한 협약.

금융감독원은 5일 바젤II를 도입하면 신용등급에 기반한 대출 차등을 확대할 때 기업이나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유리한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인도 주거래은행에 거래를 집중하고 연체를 피해 신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와 대출규모, 만기 등 대출조건이 차등 폭이 더 커지게 된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은 이전보다 더 좋은 대출조건을 적용받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진다는 의미다. 금융감독당국도 기존 ‘규정’ 중심 감독 체계를 ‘실적’ 중심으로 바꾸고 은행의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회사와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0월 신용카드 사용액 22조 5,150억

10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10월 전 업계 카드사와 경영은행의 국내 신용카드 신용판매액은 22조5천1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7월의 21조5천220억원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10월의 18조3천300억원에 비해서도 22.8% 급증한 수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0월은 계절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많은 데다 최근에는 소비심리가 좋아지면서 가장 좋은 실적이나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내가 취업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학벌”

29.2%가 ‘학벌’을 꼽았다. ‘영어 실력’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7.2%로 2위를 차지했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등 미비한 업무경력’(15.8%), ‘낮은 학점’(7.5%),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6.8%), ‘전공 및 학과’(6.1%), ‘호감가지 않는 외모나 인상’(3.0%)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들은 ‘학벌’(36.3%), ‘영어 실력’(26.7%), ‘미비한 업무경력’(13.8%), ‘낮은 학점’(8.3%) 순이었던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영어 실력’(27.8%), ‘학벌’(20.4%) 등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무릎 성장판 자극·척추 교정
기능성 신발 SRD 출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RD(호남본부장 국중귀)는 신발의 기술에 변화를 줘 무릎과 척추를 빠르게 교정해 척추장애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신발 ‘SRD’를 출시했다. ‘SRD’는 무릎성장판을 자극해 성장기 아동들의 키 크기에 도움을 준다.

‘SRD’는 한국과 일본 등 국내외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국제특허를 출원 중이다.

SRD는 이달부터 광주, 전남·북 지역점을 포함해 전국 4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1544-6780, (062)236-0036.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창 E&T	[SK텔레콤] 개통업무 담당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7	062-383-6831
아이에스인프라	출납관리, 급여관리, 기타 사무업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09	062-961-9321
한진실업	차대담당 관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11/09	062-963-4702
에듀위즈	정보보호컨설팅과정(CISSP/CISA) 강사직 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9	062-350-2457
상오정밀	정밀사출금형설계	고졸/경력10년	회사내규	11/10	062-955-2900
광주글로벌외국어학원	교객상담, 유학상담, 관리, 안내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11/10	062-228-6970
동화하이테크	정보기술팀 서버관리 및 프로그래밍 담당	대졸/경력무관	2200~2400	11/10	070-7093-6322
한국유화	연구보조 여사원 및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0	062-973-0300
한국정보	SK텔레콤 한국정보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16	062-527-5400
인포드림넷	[정규직/고정급]150만 SK텔레콤 114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11/16	062-236-0217
아이기	편직 디자이너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16	062-382-7752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전문기업 (주)에네메스 프로젝트 제작인력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2-2108-5343
미스트관광호텔	식음료, 프론트, 조리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382-7700
큐북관광서비스센터	A/S 출장사원 및 사무경리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511-352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